

# 언제쯤 별 들러나...문 닫고 방역 일 나가는 여행사 사장들

### 민사상대 여행업 종사자 최저임금 받고 관광지 방역 참여 광주에만 190여명...“이거라도 해야 입에 풀칠하죠” 코로나 3년 광주 여행업 70여개, 전남 80여개 감소

“여행사 문 열고 있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손님 한 명이 안 왔는데. 그래도 코로나 19 방역 요원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일대에 '분무기 군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5명이 한 조를 이뤄 매일 오전 공원에 나와 곳곳에 방역 약제를 뿌려 왔다. 광주시 '관광지 방역 요원' 명찰을 달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여행업계 종사자들이다.

광주 여행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악 뿌리기'가 인기가 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에 참가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업계와 관광업계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광주에서는 광주시관광협회 주관으로 5개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4억 6500만원 수준이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여행업계 관련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용 1순위는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다. 2순위는 여행사 대표와 관광분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며 3순위로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 중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광주시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참가자만 190명에 달하며, 10명 중 7명은 관광업계 실직자들이다. 이들은 관광지 방역 요원으로서 광주 시내 29개 관광지 일대에서 방역 활동,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방역 실태 모니터링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수당은 최저 임금 수준이다. 주 5일제로 1일 8시간씩 근무하면 한 달에 191만 4440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지만 이 돈마저 없었다면 진작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철오(77) 88관광여행사 대표는 “35년 동안 여행업에 종사했는데 직원 많을 땐 20명 넘게도 써왔다. 지금은 그나마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혼자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7개월 동안 국내, 국외 단 한 건의 여행자도 맞지 못했다. 당연히 매출도 '0원'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금환(58) 조이투어 대표도 “최근에도 무안공항에서 8월 중순 이후로 해외여행이 끊기면서 앞날이 캄캄해졌다. 아직도 여행업계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당장 여행업계 종사자 수가 적기 때문인지 지원도 적었던 것 같다. 그나마 방역 지원 사업으로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일대에서 '관광지 방역 요원' 명찰을 단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분무기를 들고 방역 약제를 분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광주 관광업계는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여행업체는 2019년 663개소에서 올해 590개소로 줄었으며, 전남 또한 2019년 831개소에서 758개소로 감소했다.

광주시관광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관광업이 초토화되면서 업계 사람들은 내몰릴 때까지 내몰렸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또 폭증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라며 “방역 지원 사업으로 업계 사람들

이 한숨 돌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얼어붙은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 분무기를 내려놓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강제동원 갈등 기름 붓는 일본... 또 피해자에 '99엔' 지급

### 미쓰비시 현금화 결정 앞두고 '후생 연금 탈퇴수당' 송금에 반발 피해자 지원 단체 탈퇴 선언에 정부 주도 민관협의회도 좌초 위기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실상 '99엔' 수준의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77년만인 최근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가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외교부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로 인해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이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사)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은 3일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지역에 거주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명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연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사민모임은 수당을 받은 피해자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신상과 정확한 송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09년 일본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한 99엔(한국 돈 900원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4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후생 연금(우리의 국민연금과 유사) 탈퇴 수당 지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고,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한편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한국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을 두고 후폭풍이 겹잡을 수 없

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현금화 전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일부 피해자 측과 학계, 언론,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띄우고 해결책 마련을 공언하던 상황에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이 이날 민관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며 탈퇴 배경을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이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현금화 명령 심리가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돕고 있는 (사)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과는 다른 단체소속으로 지난 두 차례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사민모임은 “일본 정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애초부터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전화사용 제한 사유 기록해야”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 등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사유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3일 “전남의 모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입원 환자 통신 제한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 지난 3월 20일 입원한 A씨는 입원한 날부터 4개월여 동안 전화 사용을 제한당했다

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 측은 “A씨가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을 위협했다.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에 대한 위협 방지 등을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전화 사용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 목적이라도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고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 측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세계한민족예술축제 초청 공연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4일부터 6일까지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한민족공연예술축제에 초청을 받았다.

3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마을어린이합

창단 학부모와 교사 등 총 32명이 세계한민족공연예술축제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른다. 정호국악문화재단과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포천문화재단, 공연전통예술미래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리는 세계한민족공연예술축제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전통예술인들이 모국에 모여서 우리 음악과 춤으로 하나 되는 행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